
매체 환경의 변화와 표현의 문제

김정자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1. 서론

휴대 전화 및 초고속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하면서 가구당 정보 기술(IT) 관련 지출 규모가 전체 소비 지출의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¹⁾ 지난 6월 6일 서울경제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인터넷 여론 조사 업체 ‘폴에버(www.pollever.com)’에 의뢰해 전국의 10대~60대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IT 소비 행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구당 월 생활비에서 IT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1.4%에 달했다. 이는 유무선 전화뿐 아니라 초고속 인터넷, 무선 콘텐츠, 유무선 게임, 사이버머니 등 모든 IT 관련 지출을 포함한 것으로 가계 지출 총액 가운데 IT 관련 지출 금액이 차지하는 이른바 ‘IT 앵겔 계수’²⁾가 11.4%라는 의미다. 특히 가구당 월간 IT 지출 금액 비율

1) 서울경제신문(2005년 6월 6일) 기사 참조.

2) 우리나라가 ‘IT(정보통신) 앵겔 계수’를 개발한다고 한다. 19세기 초기 자본주의 시

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IT 서비스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식료품처럼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³⁾ 이렇게 컴퓨터와 인터넷 등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익숙한 환경이 되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새로운 의사소통의 매체이자 공간으로, 그리고 새로운 네트워크의 장으로서 삶의 공간이 된 것이다.

개인이 경험하는 정보화는 주로 컴퓨터를 매개체로 하여 이루어진다. 펜으로 쓰던 글을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해 작성하고, 문서로 보관 하던 기록들은 컴퓨터 파일로 저장한다.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거나 편지를 주고받고, 주식을 사거나 책을 주문하기도 한다. 은행 잔고를 확인할 수도 있고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낼 수도 있다. 또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관청에 가지 않고 확인하기도 한다. 이 같은 다양한 활동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영역의 변화를 뜻한다. 하나는 생각하고 기록하고 기록을 고치고 저장하는 과정이 바뀌는 것이다. 이는 개인 차원의 변화를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 방식과 정부 민원 사무 처리 방식, 상업적 거래 방식 등이 대폭적으로 효율화하는 변화다. 이는 사회 차원의 변화다(이재경, 2001: 118). 컴퓨터나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과 달리 개인과 사회의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방식 나아가 사고방식에까지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글쓰기의 환경은 크게 변화되었다. 이전에는 종이에 펜을 가지고 글을 썼으나, 지금은 컴퓨터 문서

대에 만들어진 엔젤 계수(Engel's coefficient)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으며, 휴대 전화, 이동 통신,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비’ 중 일부가 식료품비처럼 소득과 관계없이 소비해야 하는 필수재로 인식되는 만큼 이 같은 상황 변화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이다.

- 3) 이러한 사실은 인터넷 관련 통계 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2004년 하반기 정보화 실태 조사(<http://isis.nic.or.kr>)에 따르면 2004년 12월 현재 전체 가구 중 유선 또는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가구는 86.0%, 유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가구는 72.2%였다. 전체 가구의 77.8%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고 있었고 컴퓨터 보유 가구의 97.9%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했다. 인터넷 접속 가구의 86.0%는 xDSL방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컴퓨터 이용자들 대부분(83.1%)이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했으며, 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11.7시간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만 6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평균 이용률은 70.2%이며 이용자 수는 3,158만 명으로 추정되며 만 6세 이상 20대 이하 연령층의 95% 정도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다.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글쓰기가 보편적인 모습이 되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직접 글쓰기를 하게 되었다.

컴퓨터의 등장은 새로운 글쓰기 공간을 열어 주었다. 이것은 글쓰기의 공간이 단순히 종이에서 화면으로 바뀌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컴퓨터로 인해 글쓰기가 수월해진 것이다. 글을 저장·보관했다가 수시로 불러내 지우고 다시 쓸 수도 있고, 뛰어난 편집 기능을 이용해 여러 글을 동시에 교차 편집도 하며, 여러 가지 시각적 효과를 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단순히 컴퓨터의 등장만으로 새로운 의사소통의 장이 열린 것은 아니다. 개개의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즉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글쓰기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산업 혁명은 단순히 생산 방식의 변화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공업에서 기계 공업으로 생산 방식이 변화되어 제품을 대량 생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각지로 유통되고 소비되지 않았다면 산업 혁명은 인간의 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 힘들었을 것이다. 철도의 발달로 전국 각지가 연결되면서 생산된 제품이 각지로 유통되고 대량으로 소비되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철도의 역할처럼 인터넷은 이렇게 생산된 글을 여러 사람이 보고 반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글의 유통과 소비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또한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게시판, 홈페이지, 블로그, 전자우편 등 다양한 소통 경로에서 쉽게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2. 인터넷 통신 언어의 문제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한 표현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른 표현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연구되었는데, 하나는 새로운 매체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관심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의 소통 방식과 소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다.

지금까지 컴퓨터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는 이른바 ‘통신 언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국어학자들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해 주로 관심을 보였는데, 그것은 대개 현실 공간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온라인 공간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차이점에 주목한 것이었다. 통신 언어의 특성을 음운, 어휘, 통사 등의 차원에서 기술하거나 언어 규범의 차원에서 통신 언어의 문제점을 논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⁴⁾ 이들은 대부분 문자 기호로 구어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통신 언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음성 대화에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가 기본적인 언어 정보에 얹혀서 전달되며, 직접 대면 상황에서는 다양한 동작, 몸짓, 얼굴 표정 등 다양한 비언어적 표현을 이용할 수 있다. 네티즌들은 타이핑된 글자에 음성 정보와 비언어적 표현을 대체할 요소를 더 첨가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며, 이런 욕구의 실현에서 통신 언어가 출현했다는 것이다. 박동근(2002)에서는 통신 언어의 범위를 논하면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누어 통신 언어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통신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해 통신상에서 사용되는 모든 문자 언어이며, 좁은 의미에서 통신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해 통신상에서 사용되는 문자 언어 중에서 일반 언어의 표기 또는 음운적 변이형이나 통신상에서 만들어진 새말, 통신상에서 새롭게 의미가 부여된 말, 또는 통신상의 독특한 문체나 어법, 의사 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특수 기호를 포괄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정형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통신 언어의 연구는 대부분 좁은 의미의 연구로서, 통신 언어의 전체적인 양상보다는 주로 현실의 언어생활과는 다른 특수한 사용이나 규범에 어긋난 사용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통신 언어의 이러한 양상은 국어학자나 국어의 사용을 지도할 책임이 있는 국어 교사들에게는 중요한 문제⁵⁾로 여겨진다. 또 학생들의 한국

4)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로는 구분관(2001), 권순희(2001), 권원진(2000), 민현식(2001), 박동근(2002), 박영록(2001), 송경숙(2002), 이정복(2000, 2001a, 2001b), 임칠성(2000) 등이 있다.

5) EBS 방송 ‘우리말 우리글’(2002년 10월 5일, 10월 12일 방송 시간 : 토요일 오후 5:40-6:10)에서는 컴퓨터통신 언어를 주제로 조오현 교수(건국대학교 국문과)와의

어 사용 능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⁶⁾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에서 실시한 ‘청소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3.2%가 통신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답변했으며, 통신 언어를 일상생활에 사용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5%가 있다고 답변했다. 일상생활에 사용한 경우로는 주로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44.2%)와 친구들과의 대화(29.0%), 편지(18.2%)를 들었다.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도 통신 언어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주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통신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통신상의 언어 규범 파괴 문제에 대하여 학생들의 태도와 교사의 태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신 언어를 많이 사용하

대답을 방영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아본 결과 ‘통신 언어가 일상 언어에 영향을 주는가’라는 설문 조사에서 68.72%가 ‘그렇다’는 대답을 했다.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통신 언어는 곧 언어 파괴, 맞춤법 파괴, 정신 황폐화 등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방송의 요지였다.

특히 통신 언어와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염려를 나타냈다.

“10대들은 언어가 제대로 익지 않은 언어 습득기에 있다. 그런데, 모방 심리가 강하고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10대들 사이에서 통신 언어가 거의 일상 언어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통신 언어의 남용은 자라서도 잘 고칠 수 없어, 우리말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나아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을 주고, 남과 더불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언어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초등학교생들의 경우, 일상 언어와 통신 언어를 구분해 사용하는 분별력이 없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표준어나 맞춤법을 확실히 모르는 초등학생이 맞춤법과 문법에 어긋난 표기를 계속하다 보면 자라서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하기 힘들고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고가 자리 잡을 수도 있다.”

6) 한겨레신문(2002년 1월 5일) 기사 “한국인 국어 낙제점” 참조.

한국인의 국어 사용 능력이 낙제점을 한참 밑돌아 기준 점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869명을 대상으로 한 ‘어문 규범 능력 검사’에선 각각 중고등학생이 평균 31.26점, 대학생 34.23점, 일반인 29.81점으로 나타났다. (중략) 민 교수는 ‘50점 이상은 돼야 제대로 된 국어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공교육에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국어 학력 저하와 통신 공간에서 문법 및 어법 파괴 현상으로 인해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고 우려했다.(하략)

통신 언어의 규범 파괴에 대한 학생-교사의 태도 비교

조사 대상 ▾	의견 ▶	언어 규범의 파괴가 심각하므로 언어 규범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통신상에서만 한정해서 사용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언어는 어차피 변하기 마련이므로 통신에서는 실생활에서도 사용해도 무방하다	기타	합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학생	빈도	214	309	51	19	593
	%	36.1%	52.1%	8.6%	3.2%	100%
교사	빈도	47	26	2		75
	%	62.7%	34.7	2.7%		100%

는 학생들에 비하여 교사들이 통신 언어에 대하여 더 보수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김정자, 2004).

그런데 조사에서 교사들은 통신 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으나 그것을 사용하지 말도록 교육하는 것의 효과에 대해서는 강한 확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⁷⁾ 통신 언어 사용 제한의 교육적 효과를 의심하는 교사들은 대개 통신 언어의 사용이 너무 일반화되어 돌이키기 힘들다는 의견을 많이 내놓았다. “통신 언어라는 것이 이미 하나의 문화로 굳어졌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통신 언어는 학생들의 문화에 이미 깊이 침투되어” 있고 “일탈된 언어 사용을 통해 자기 세대만의 문화적 동질감을 느끼려 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석주(2002)에서 디지털 세대의 변칙적인 글쓰기는 그들만의 한 문화이며, 그것들 중 일부는 이미 우리 시대의 전 문화적 코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디지털 세대의 글쓰기 일부가 이미 우리 시대의 전 문화적 코드가 되었다’는 의견은, 통신 언어를 대중 매체에서 인용하거나 변용하는 것을 보거나 우리의 매체 이용 모습을 성찰하면 이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변칙적인 글쓰기라는 것은 현실공간의 글쓰기와 비교해 볼 때, 현실공간의 글쓰기는 규칙적인 것이며 인터넷상의 글쓰기는 변칙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변

7) 조사 대상 교사의 35.9%의 교사만이 ‘효과가 많이 있다’는 답을 했다. 김정자(2003c) 참고.

칙은 규칙이나 규범의 반대로서 바로잡아야 할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인터넷의 표현을 언어 파괴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 즉 인터넷의 글쓰기는 정규적이고 문어적인 언어 규범이 파괴되고 비정규적이고 구어적인 표현들이 전면에 부각되었다고 보는 것이다⁸⁾.

매체의 변화에 따른 표현의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규범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⁹⁾보다는 매체의 특성에 적응한 통신 언어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통신 언어의 문제점을 분석할 때 주로 인터넷 대화방(인터넷 이전에는 PC 통신)의 언어를 주목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의사소통은 홈페이지, 전자 게시판, 전자 우편, 메신저, 블로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홈페이지, 전자 게시판, 전자 우편, 블로그 등은 새로운 의사소통 양식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텍스트 유형인 하이퍼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과 소위 통신 언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화방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전자 게시판, 전자 우편 등의 언어 사용 양상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3. 매체의 변화와 글쓰기의 변화

통신 언어를 바라보는 관점과는 달리 인터넷의 소통 방식과 소통 문화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다. 작문 이론, 의사소통 관련 분야, 원격 교육 등에서는 글쓰기의 새로운 공간으로서 ‘컴퓨터 매개 통신(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CMC)’의 등장을 반기고 있다. 성 역할이 재규정될 수 있고, 나이나 권력에 따른 위계가 깨어지고, 주변인의 목소리도 들릴 수 있는 공간이 CMC의 공간이

-
- 8) 인터넷 ‘외계어’의 등장과 ‘아햏햏’ 문화는 언어 파괴의 극단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9) 통신 언어의 언어 파괴 문제를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 새로운 미디어와 의사소통 방식에 적응하기 위한 과도기적 표현 방식이거나 언어 유희를 즐기는 경우로 볼 때 현실 공간의 언어 규범을 적용하여 고쳐야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다.

새로운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언어, 문화, 사고에 가져온 변화, 즉 뉴미디어 및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문화사적 의미를 밝히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한 가상공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미디어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면서 근대성의 오래된 담론 체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형태의 탈근대의 문명을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상공간을 통하여 디지털화와 통합화, 영상화, 고도의 상호 작용성, 비동기화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고 있다(라도삼, 1999: 222~225)고 보고 있다. 또한 의사소통상의 특징으로는 쌍방향적인 의사소통, 송신자와 수신자의 구별이 없는 것, 즉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도 텍스트를 유통시키는 것도 텍스트를 소비하는 것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용자들이라는 것을 큰 특성으로 들고 있다. 이미지화와 시각화를 통한 감성적 의사소통의 회복이라든지, 소통 공간의 확장, 비선형적 하이퍼텍스트의 형성, 새로운 자기(정체성)의 창조 등도 특징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 중에서 특히 글쓰기와 관련된 변화를 한 번 살펴보자. 인터넷의 발전은 글쓰기에 대한 근본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변화 상황을 이석주 외(2002)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글쓰기의 계층이 넓어지고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언어 표현이 간략해졌다.

둘째, 구어와 문어 사이의 구별을 넘어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더욱 밀착되었다.

셋째, 글쓰기에 그림과 소리가 어울어지면서 문장 표현의 기능 변화가 시작되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정보의 양이 방대해졌기 때문에 글쓰기의 형태는 점점 요약하고 핵심만 보여 주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워드 프로세서 대신 프레젠테이션 도구가 선호되고 있다는 것이다. 간결한 문체, 두괄식 논리 전개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으며, 프레젠테이션에서

는 한 페이지에 길어야 10줄 정도를 채우는 것이 적당하며, 문장도 될 수 있는 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화나 대면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가 메신저를 이용한 채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단순한 표현의 간략함을 넘어서 글쓰기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구분이 모호해짐으로써 음성 언어의 특징이 글쓰기에 간접하게 되었으며, 글쓰기에서 정보는 문장만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시청각적 전 감각에 호소하게 되었다는 특징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환경에서 글쓰기는 이러한 특징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인터넷 상의 글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글의 길이가 대체로 짧다는 것을 많이 언급한다. 화면상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내용이 한 화면에 다 담기도록 해야 하고, 긴 글을 읽을 참을성이 없는 네티즌을 위하여 핵심 정보만을 추려서 제시하는 것이 인터넷 환경의 글쓰기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터넷 환경은 종이책이나 신문처럼 지면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긴 글을 구성할 수 있으며 그러한 긴 글들이 링크로 연결되어 더 긴 글을 형성할 수도 있다. 또한 문자로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펜 작문과 달리 인터넷 환경의 글쓰기에는 다양한 시청각적 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가 전달하는 정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문어와 구어 사이의 구별을 넘어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더욱 밀착된다는 특성도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 또한 글쓰기의 목적과 상황, 주제 등에 따라 즉 필자와 독자(또는 화자와 청자)의 상호 작용이 주목적인가, 정보 제공이 주목적인가에 따라, 글쓰기(또는 발화) 상황의 공식성에 따라 그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드러낸다.

물론 인터넷 환경에서 글쓰기는 새롭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인터넷 환경의 글쓰기가 현실 공간의 글쓰기와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는 아니다. Moran & Hawisher(2001)는 CMC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소인 “전자 우편은 새롭다(new)”고 주장한다. 그들은 “어린이는 새롭다”는 의미와 같은 뜻으로 전자 우편을 새롭다고 주장한다. 어린이는 어

떤 순간에는 어머니를 닮았고, 또 다른 어떤 순간에는 아버지를 닮았고 때로는 조부모를 닮았다. 마찬가지로 전자 우편도 그 나름의 수사학과 언어에서 새로운 매체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조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자 우편의 유전자 은행에는 이전과 현재의 모든 양식(modes)과 인간 의사소통의 스타일이 있으며, 문어와 구어가 다 있다는 것이다.

Moran & Hawisher(2001)의 관점을 바탕으로 인터넷 환경의 글쓰기의 특성을 글쓰기의 과정, 도구, 방법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글쓰기 과정의 변화

펜 작문과 인터넷 환경에서 글쓰기는 글쓰기 과정에서 차이를 보인다. 펜 작문에서는 글을 쓸 때 즉각적으로 쓰기 않고 숙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터넷 환경에서 글을 쓸 때는 펜 작문보다는 숙고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쓰는 경향이 많으며, 때에 따라서는 필자와 독자가 거의 동시에 상호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글을 다 쓰고 난 후에 펜 작문은 고쳐 쓰기의 과정을 거치나, 인터넷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인터넷을 활용한 쓰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동기적 방식과 비동기적 방식이다. 동기 방식은 실시간에 동일 시간대에 타 공간에 있는 사람과 상호 반응적 글쓰기를 하는 것이다. 시각적으로는 글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말 건넌을 하는 구어적 소통 방식을 띤다. 전통적인 작문 체계에서 일탈되는 현상들을 보여 준다. 비동기적 방식은 담화 공동체를 통한 상호 관계적 글쓰기에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속도보다는 타인의 주의나 주장에 동조하거나 반박하는 글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비판적 읽기와 논리적 쓰기가 요구된다(이채연, 2002: 208).

동기적 방식의 글쓰기는 글쓰기라는 개념보다는 문자적 발화¹⁰⁾에

10) 실제로 메신저나 인터넷 대화방에서 주고받는 채팅을 화법의 문제로 다루고자 하는 시각도 있다.

가까운데, 소위 통신 언어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은 동기적 방식의 글쓰기에서 주로 드러난다. 물론홈페이지를 구성하거나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즉 비동기적 방식의 글쓰기에서도 그러한 특징이 드러나기는 한다. 하지만 소통의 목적이 다를 경우는 이른바 통신 언어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감정의 토로나 오락적 목적이 아닌 토론이라든지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논리적 글쓰기에서는 상대적으로 현실 공간의 글쓰기 규범을 따르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2) 글쓰기 도구의 변화

글쓰기의 도구 면에서, 인터넷 글쓰기의 한 특징은 단순히 문자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모티콘이다. 이모티콘은 감정을 뜻하는 이모션(emotion)과 아이콘(icon)의 합성어로서 컴퓨터 자판에 있는 문자와 기호, 숫자 등을 조합해 컴퓨터 통신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법을 말한다.

이모티콘은 여러 가지로 발전했는데¹¹⁾ 텍스트 타입과 이미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11) 한국경제신문(2005년 5월 10일) 기사 참조

이모티콘은 1세대부터 4세대로 진화했다.

1세대 이모티콘은 주로 웃는 모습 :) 같은 단순한 표정 언어가 주류였다. ‘나는 기분 좋다’는 긴 문장을 치는 대신 :) 하나로 표현했다.

2세대 이모티콘은 2000년 9월 국내 MSN 메신저 3.0 버전이 등장하면서 나타났다. 메신저창에 이미지와 색깔을 넣은 기쁨, 슬픔, 화남 등의 감정을 기본 이모티콘으로 제공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문자로 나타내던 각종 표현을 그림으로 메뉴얼화해 대체한 것, 길고 다양한 감정 표현이 더욱 간단한 이모티콘으로 표현됐다.

3세대 이모티콘은 동작성이 추가됐다. 이모티콘이 눈웃음을 치거나 춤을 추는 등 액션을 첨가하여 단조로움을 극복했다.

최근 등장한 4세대 이모티콘은 상대방에게 전달된 이모티콘이 갑자기 커지면서 움직임 보이는데 등 시각 효과까지 극대화됐다.

와 깊은 친밀감을 이루어나가기에 적합한 도구이다. 인터넷 환경에서 비언어적 공손 전략으로서 이모티콘의 기능을 분석한 연구(박현구, 2004)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메신저, 전자 우편 등의 상호 작용적인 소통에서 많이 사용되며, 인터넷 환경이라 하더라도 논리적인 글에서는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모티콘은 인터넷 환경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보편화되었다. 이미 몇몇 이모티콘은 [늑대의 유혹], [그놈은 멋있었다] 같은 인터넷 소설에 사용되기도 하고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의 자막에 등장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대학생이 제출한 리포트에까지 나타날 만큼 익숙해졌다. 특히 휴대 전화의 보급과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의 유행으로 이모티콘을 콘텐츠화하여 수익을 내는 부가 서비스까지 나왔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클릭 몇 번으로 이미 만들어진 이모티콘 형상 중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원하는 사람에게 쉽게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모티콘뿐만 아니라 인터넷 환경에서 글쓰기는 다양한 이미지와 음악과 결합하여 구성될 수 있다. 휴대 전화와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은 글쓰기의 방법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원고지에 펜으로 작문을 하는 것에서, 워드 프로세서로, 인터넷상에서 즉각적으로 작문을 하는 것으로 변화하면서 글쓰기의 과정과 결과에 조금씩 변화가 왔지만, 디지털 촬영 도구의 등장은 이미지를 활용한 글쓰기라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2~3년 전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한 미니홈피와 블로그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을 잘 알 수 있다.¹²⁾

3) 글쓰기 방식의 변화

인터넷 환경의 글쓰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

12) 유선 인터넷에 머물렀던 블로그는 다시 ‘모블로그(Moblog)’로 진화하고 있다. 모블로그는 휴대 전화, PDA 등 무선 기기를 이용해 웹상에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글, 그림 등 콘텐츠를 수시로 올리는 것을 뜻한다. 휴대전화 사용이 활발한 10~20대 네티즌 사이에서 인기라고 한다. 모블로그 서비스 중인 싸이월드에서 하루 4만 건 이상이 ‘폰 투 웹’(휴대 전화에서 웹으로) 업로드되고 있다고 한다.

적인 것도 있다. 인터넷 환경에서 글쓰기는 일반인들에게 글쓰기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주거나 없애 주었다. 낮아진 진입 장벽 때문에 누구나 글을 쉽게 쓸 수 있고 글쓰기로 성공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한다. 한편으로는 디지털 매체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학생들의 글쓰기 실력은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감각적 자극에 치중하다 보니 지적 자극에 둔감하게 되고, 디지털 매체가 요구하는 즉각적 반응에 의존도가 커짐에 따라, 읽고 쓰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었으며, 다른 사람의 글을 다운받거나 표절하여 과제물로 제출하는 현상은 도덕적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김승중 (2004: 18))는 것이다.

둘 다 인터넷 공간의 글쓰기 방식에 의해 드러나는 특징들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글쓰기는 상대적으로 쉽다. 꼭 형식을 갖춘 긴 글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의 글에 한줄 답변이나 짧은 댓글(덧글)을 달아 자신의 뜻을 간단히 표현할 수도 있다. 또한 클릭 몇 번으로 다른 사람의 글과 이미지 등을 이용하여 쉽게 글을 구성할 수 있다¹³⁾.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다. 이것은 미니홈피나 블로그의 많은 글들이 다른 사람들의 글을 그대로 퍼온 것들임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쉽게 글을 쓸 수 있는 반면에 속고와 성찰이라는 기존 글쓰기의 장점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과 이러한 방식의 글쓰기를 잘 활용한 글쓰기 방식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블로그의 새로운 기능 중 하나로 ‘트랙백(trackback)’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블로그는 기존의 어떤 인터넷 형식보다 쉽고 자유롭게 개인의 웹사이트를 만들어 마음대로 글을 쓰고 사진,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올릴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글과 주장에 호응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블로그는 웹 게시판과 개인 홈페이지, 네트워크(커뮤니티)의 기능이 합쳐진 새로운 형태의 소

13)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가 있고, 그러한 정보를 잘 찾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지식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능력이라는 연장선상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 편집하는 능력도 중요한 글쓰기 능력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블로그의 기본적인 형태는 인터넷에서 많이 보던 게시판이다. 블로그와 기존 홈페이지나 게시판, 커뮤니티와의 차이는 사용 방법이 간편하면서도 미디어적 속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블로그는 한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터넷 가상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해 주는 도구이자 문화이다. 블로그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블로깅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그곳에다가 쓰고 싶은 글이나 사진, 각종 정보를 올리면 자신만의 공간과 정보가 만들어진다. 이것은 일자별로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페이지가 업데이트되어 자기표현, 커뮤니케이션, 정보 공유, 기억의 저장소로서 역할을 한다.

이 블로그에 글을 쓸 때 다른 사람의 글을 가져오되 그것에 이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방식이 바로 ‘트랙백’이라는 것이다. 트랙백은 원격 댓글을 쓰고 이를 알려 주는 기능이다. 트랙백의 기능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트랙백은 초기 블로그에는 없던 새로운 기능으로서 댓글(reply, 답글), 댓글(comment, talkback 등) 기능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답글과 댓글은 해당 게시판에 독자가 게시물을 읽고 난 뒤 답변이나 감상문을 적는 기능이다. 따라서 댓글은 해당 게시물 밑에만 남겨진다. 트랙백은 이보다 좀 더 개선된 기능으로 다른 곳에 댓글을 남기는 기능입니다. 즉 해당 게시물에 대해 댓글이나 댓글을 달되 다른 사이트에서 원격으로 댓글이나 댓글을 다는 행위이다. 이전에는 A 사이트의 '장터' 게시판 '1번' 게시물에 대해 댓글을 남길 경우, 이 댓글을 보기 위해서는 A 사이트 장터 게시판 1번 게시물을 읽어 봐야만 댓글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트랙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A 사이트의 장터 게시판 1번 게시물에 대한 댓글을 B 사이트의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트랙백을 만든 이유와 그 의미는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트랙백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이다. 트랙백은 다른 사람이 쓴 블로그 문서에 자신이 원격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행위를 말한다. 트랙백으로 작성한 글은 작성자 블로그의 새 엔트리가 된다. 예를 들어 A 사이트의 블로거가 '한글날에 대하여'라는 글을 올렸을 경우 B 사이트의 블로거는 해당 글에 대한 의견을 자신의 블로그 사이트에 트랙백 형태로 올릴 수 있다. 트랙백은 두 블로그 사이의 연락 수단이 된다. 이런 트랙백 형태로 글을 올리면 기존의 댓글보다 편리한 점이 많다. 트랙백은 두 블로그

사이트 사이에 연락을 취하는 수단이 된다. 트랙백을 통해 B는 A사이트의 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고 A는 B라는 사람이 자신이 쓴 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존의 게시판은 댓글, 댓글 기능이 있지만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기존 댓글, 댓글의 단점]

1. 긴 글을 작성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2. 주인장의 기능 제한으로 대개는 HTML 태그 사용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텍스트로만 된 글을 올려야 한다.
3.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달고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기록해야 하는 이중 수고를 해야 한다.
4. 자신이 작성한 댓글에 대한 추가 반응을 얻기가 어렵다. 댓글에 대한 댓글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어렵다.
5. 작성자의 홈페이지 방문을 유도하기가 어렵다.

트랙백은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므로 기존 댓글이 지닌 단점을 대부분 보완한다. 한두 줄의 짧은 텍스트가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도 들어간 제대로 된 HTML 문서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의 트랙백으로 쓴 엔트리(글)가 또 다시 트랙백의 대상이 되거나 링크의 대상이 된다. 이는 과거의 게시판에서 제공하지 못하던 기능이 다.(www.help119.co.kr 참고.)

링크로 엮어진 글은 링크된 글이 있는 사이트로 가서 글을 읽어야 하지만 트랙백으로 엮어진 글은 자기의 사이트 혹은 블로그에서 그 글을 그대로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블로그의 등장이나 트랙백이 난 블로그의 기술적 발전에 따라 글쓰기이의 방식도 그에 따라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좀더 쉽고 편리하게 글을 읽고 쓰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약 20여 년 이래로 매체의 발달은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가능하게 했고 그것은 우리 사회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새로운 매체와 새로운 소통 방식에 맞게 표현의 방법도 변화해야 할 것이다. 글쓰기의 방식도 매체에 따라 소통 방식에 따라 달라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안 숙고한 끝에 글을 쓰고 정확한 문장과 어법으로 문단을 구분하여 논리적으로 쓰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글쓰기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매체나 소통 방식의 특성에 따라 ‘생각을 정리하여 빨리 쓰기’, ‘짧게 집약적으로 쓰기’, ‘재미있게 쓰기’, 화면으로 읽는 것을 고려하여 ‘보기 좋게 쓰기’ 등의 글쓰기 방식을 익히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4. 매체의 변화에 따른 글쓰기 교육

정보화 시대의 소통 방식과 표현 방식의 변화에 따라 교육에서도 새로운 의사소통의 매체로서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각급 학교의 인터넷 교육은 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활용 능력, 정보 검색 능력의 함양이라는 ‘컴퓨터 활용 기술 능력’의 함양에 목표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소통의 공간이자 문화 매체 구실을 하는 인터넷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드물다.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도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해 주목하고 있기는 하다.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는 새로운 매체인 컴퓨터와 인터넷과 관련되는 교육 내용 항목이 여러 개 있다. 그런데 이것은 국어과의 교육 내용 중 어떤 내용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정도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글을 쓰고 편집하는 도구나 표현할 내용을 선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을 뿐이지, 새로운 의사소통의 매체와 텍스트 구실을 하는 인터넷의 가능성과 본질은 교육 과정에서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국어 교육 과정과 작문 교육 과정, 교과서를 분석해 보았을 때 매체에 따른 글쓰기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단지 종이 대신 화면에 대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과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적절한 내용과 형식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 ‘전자 글쓰기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캐나다, 미국, 호주 등의 교육 과정을 보면 쓰기 교육에서 다양한 매체의 표현 방식을 교육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인터넷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책(최기호 외, 2005; 김성모, 2003)들

도 나오고 있으며, 자신의 온라인 글쓰기에 대한 네티즌의 성찰(<http://readme.or.kr>)도 있다. 물론 이들이 인터넷 글쓰기의 방식에 대해 온전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런 시도들이 쌓여서 인터넷의 글쓰기는 변화하는 매체에 적응하는 글쓰기로서 정체성을 찾아갈 것이라고 본다.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의 의미와 그 문화에 대한 교육은 바로 국어 교사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몫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인터넷의 소통 방식을 국어 교육의 내용으로 설정할 때, 단순한 네티켓¹⁴⁾ 차원이 아니라 학생들이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는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 우편을 쓰거나 전자 게시판에 글을 쓰는 방법을 가르치는 등의 수행만을 교육 내용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소통 방식을 경험하도록 하는 수행적, 경험적 교육을 넘어서 그러한 행위의 의미와 문화적 가치까지 깨닫게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참고 문헌 |

- 구본관(2001), 컴퓨터 통신 대화명의 조어 방식에 대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제10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권순희(2001), 컴퓨터 통신 대화의 언어적 특성 고찰, “국어교육” 제105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권연진(2000), 컴퓨터 통신 언어의 유형별 실태 및 바람직한 방안, “언어과학” 7-2, 한국언어학회 동남지회.
- 김기태(2003), “인터넷 바르게 즐기기-인터넷 미디어 교육”, 한국통신문

14) 인터넷 글쓰기 윤리, 정보 윤리, 언어 윤리 등의 차원에서 인터넷의 소통 방식의 유의점을 제시하는 것들이 많다. 전자 우편 사용 네티켓, 대화방 네티켓, 게시판 네티켓, 웹 문서 작성 네티켓, 홈페이지 작성 네티켓 등이 그것이다. 현재의 제7차 교육 과정의 작문 교과서에도 전자 작문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 이러한 네티켓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화재단.

- 김성도(2003), “디지털 언어와 인문학의 변형”, 경성대학교 출판부.
- 김성모(2003), “인터넷 글쓰기”, 서울출판미디어.
- 김승중(2004), 전통적 글쓰기와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 “국어문학” 39집, 국어문학회.
- 김정자(2002), 전자 우편 쓰기 교육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10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김정자(2003a), 전자 게시판 글쓰기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11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김정자(2003b),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작문 교과서 내용 분석 연구--- 전자 작문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16집, 국어교육학회.
- 김정자(2003c), 정보화 시대의 글쓰기 교육을 위한 국어 교사의 인터넷 이용 실태 및 인식 조사, “어문연구” 119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김정자(2004), 국어과 교사와 학생의 인터넷 이용 실태 및 인식 비교, “국어교육학연구” 제19집, 국어교육학회.
- 김은미, 김은주(2004),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의사소통 양식의 특징과 쟁점, “사회과학논집” 제34집.
- 김현수(2004), 게시판과 블로그의 비교, 인터넷상의 집단적 소통과 개인적 기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춘계학술대회.
- 라도삼(1999), “비트의 문명 네트의 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 민현식(2001), “정보 통신 언어의 순화 및 정보 윤리 교육의 학교 교육 활용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민현식(2002), 한국인의 국어 능력 실태, “새국어생활” 제12권 제12호, 국립국어연구원.
- 박동근(2002), 통신 언어의 유형에 따른 언어학적 기능 연구, “한말연구” 제10호, 한말연구학회.
- 박현구(2004), 인터넷 환경에서 비언어적 공손 전략으로서 도상 문자에

-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8권 제1호.
- 이석주 외(2002), “대중 매체와 언어”, 역락.
- 이시훈(2004), 인터넷 통신 언어의 사용 현황과 인식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4권 제11호.
- 이재경(2001), 정보화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 김도훈 외,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평론. p118.
- 이정복(2000), “바람직한 통신 언어 확립을 위한 기초 연구”, 문화관광부.
- 이정복(2001a), 10대 청소년들의 통신 언어 사용과 문제점, “한글사랑” 2001년 봄호, 한글사랑.
- 이정복(2001b), 통신 언어 문장종결법의 특성, “우리말글” 제22집, 우리말글학회
- 이정복(2002a), 전자편지 언어에 나타난 우리말 변용 현상, “사회언어학” 제10권 제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 이정복(2002b), 전자편지 텍스트의 구조와 기능, “텍스트언어학” 제12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이채연(2002), 인터넷을 활용한 국어과 쓰기 지도의 수업 모형 구안과 그 효과, “국어교육” 107. 한국어교육학회.
- 임칠성(2000), 컴퓨터 공개 대화방 대화의 매체 언어적 성격과 대화 양식 고찰, “텍스트언어학” 제9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전병용(2002), 통신 언어의 음운론적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21집, 한국언어문화학회.
- 전병용(2002), “매스미디어와 언어”, 청동거울.
- 최기호 외 5인(2005), “인터넷 글쓰기의 달인”, 세종서적.
- Moran, C. and Hawisher, G.(2001), The rhetorics and languages of electronic mail, In Snyder, I.(ed.), Page to Screen - Taking Literacy into the Electronic Era, Routledge.

참고 사이트

www.help119.co.kr

readme.or.kr

isis.nic.or.kr